

# 3대 병역명문가 자부심... ‘나라사랑가게’ 눈길

전남광주 가게 319곳 동참... 병역이행자에 10% 할인

김미진 VTS 카페 대표 “나라에 청춘 바친 이들 응원”

전남광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319개 업체가 병역이행자를 위한 ‘나라사랑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3대에 걸친 병역명문가의 자부심을 팔이 가게 운영으로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구 사직도서관 맞은편에서 카페 ‘VTS (Vancouver Tipton Street)’를 운영하는 김미진 대표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가게는 당해연도 동원훈련 이수자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 병역명문가 등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병역이행자를 일상에서 응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4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319개 업체가 사업에 동참해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VTS의 참여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김 대표의 부친은 강원도 양구군 2사단에서 35개월간 복무한 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김 대표 집안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현재 부친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평소 자녀들에게 강조해온 ‘나라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김 대표는 “아버지는 평소 ‘조국을 지키는 일은 가문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3대에 걸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 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동합동별시 남구 사직도서관 맞은편에서 카페 ‘VTS (Vancouver Tipton Street)’를 운영하는 김미진 대표 부부.

그런 아버지의 자부심은 김 대표가 자신의 가게를 열면서 또 다른 방식의 나라사랑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올해 3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던 거리를 떠날 때 ‘Vancouver Tipton Street’의 앞

글자를 딴 카페 VTS를 열었다. 새로운 일터를 시작하면서 김 대표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매장 운영을 넘어 자신이 물려받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아버지에게서 배운 나라사랑의 마음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싶어 나라사랑가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VTS는 병역이행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혜택과 함께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는 아라비가 100% 원두로 만든 커피와 당일 구워 당일 판매하는 수제빵과 쿠키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나라사랑가게는 병역이행자에게 단순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넘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김 대표처럼 가족이 오랜 기간 이어온 병역의 의미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실천하는 참여 사례는 나라사랑가게가 추구하는 취지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주시가 나주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홍보 행사’를 열고 나주들애찬한우 불고기를 점심 메뉴로 제공했다.

## ‘나주들애찬한우’ 알리고 지역 한우 소비 촉진 시, 나주축협과 함께 브랜드 홍보 행사 실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전남광주동합동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구내식당에서 나주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홍보 행사’를 열고 직원들에게 나주들애찬한우 불고기를 점심 메뉴로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나주들애찬한우’를 알리는 한편 지역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나상필 나주축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축협 관계자들도 함께해 직원들에게 불고기를 제공하고 나주들애찬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았다.

‘나주들애찬한우’는 ‘들에 가득 찬 한

우’라는 의미로 나주의 풍요로운 들녘과 한우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담은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다.

지난해 9월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영산포 홍어·한우축제’에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역의 대표 미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달 말부터는 나주축협물과 나주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한우 정육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소비자들이 지역 한우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번 행사가 작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나주들애찬한우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지역 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와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슬픔의 공간에 책으로 건넨 위로... 천지장례문화원에 독서쉼터

유가족·조문객 누구나 이용 가능

새마을문고 광주시 서구지부가 장례식장을 찾은 유가족과 조문객들에게 책을 통한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독서문화 공간을 마련했다.

새마을문고 광주시 서구지부(회장 김옥자)는 최근 천지장례문화원(대표 배경희)에 ‘2026 서구새마을문고 쉼터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도서 50여권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례식장이 이별과 슬픔을 마주하는 공간인 만큼,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추스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독서공간을 마련했다. 독서공간은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토닥이는 한 줄’을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책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옥자 새마을문고 광주시 서구지부 회장은 “장례식



새마을문고 광주시 서구지부는 최근 천지장례문화원에 ‘서구새마을문고 쉼터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도서 50여권을 기증했다.

장은 이별의 슬픔이 가득한 장소지만 책 한 줄이 전하는 문장의 힘이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토닥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광산구, 어르신 노후 지원... 건강태권도 운영 확대

하남권 신설 총 4개 권역

전남광주동합동별시 광산구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건강태권도 교실’을 오는 9월부터 하남권까지 확대 운영한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건강태권도 교실’은 어르신의 신체 수준에 맞춰 태권도 기본동작과 발차기, 품세, 태권체조 등을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규격적인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건강측정, 승급·승단심사, 태권도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운동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신체활동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 운남권 다들아라노인복지관 1

개소에서 건강태권도 교실을 처음 시작한 뒤 2023년 송정권 행북나루노인복지관과 첨단권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로 3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올해 7월까지 3개 권역 건강태권도 교실의 참여 연인원은 3988명으로, 어르신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건강태권도 교실을 신설해 운영 권역을 4개로 확대했다.

하남권 건강태권도 교실은 9월 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40명으로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광산구보건소 건강증진과(062-960-8766)로 전화하거나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에서 할 수 있다.



박병국 광산구청장은 “건강태권도 교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승급심사와 대회 출전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고, 스스로 건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하남권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5개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7월6일)

**쥐**

48년생 다툼 마당에 마무리가 두렵다  
60년생 분주히 돌아다녀 이루어지는 일 이룬다  
72년생 미운사람이 자귀해도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96년생 마지막 까지 포기하지 말라

**토끼**

51년생 상대방의 유혹을 뿌리치라  
63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75년생 남에게 잘못 물리면 발전이 없다  
87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계가 있다  
99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이다

**말**

54년생 만족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  
66년생 귀하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따른다  
78년생 습관화된다면 습관을 버리라  
90년생 일은 욕심이 있어야 배운다

**돼지**

57년생 장면에 걸릴 수 있으니 음식 신경써라  
69년생 변변찮은 일은 과감하게 처리할 때  
81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93년생 용기 내 사랑 고백할 때

**소**

49년생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겠다  
61년생 허례허식 주의해 낭비할 없애자  
73년생 지인의 말을 귀담아들으면 득을 보리라  
85년생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헛소리 만드나  
97년생 눈높이 맞춰 미래 설계하라

**송**

52년생 운수 좋은 날이지만 허각상 조심하라  
64년생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  
76년생 귀하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날  
88년생 사랑운이 좋은 시기이다

**양**

55년생 나이까지도 몰라서지도 못하는 처지  
67년생 동쪽에 귀인이 있다 도움을 청하라  
79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이기는 지혜 필요하다  
91년생 자존심은 이성 간 교제에 기사가 된다

**개**

58년생 가끔씩 배우자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0년생 어차피 인연이 없으니 아예 양보하라  
82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  
94년생 금전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호랑이**

50년생 주변인과 고성이 오가니 참이라  
62년생 매사가 순조로워 것이니 안심하라  
74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86년생 협력자가 모이고 금전이 생긴다  
98년생 환경 변화가 시작되니 새 희망 보인다

**뱀**

53년생 본계도와는 동떨어져 있는나라  
65년생 바빠 서두르면 하여간 손해 볼 것이다  
77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라  
89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원숭이**

56년생 환경에 변화가 있지만 유리한 상황  
68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볼 수 있다  
80년생 새 아이디어로 활기찬 하루 맞이한다  
92년생 그리운 마음 크지만 주면서 맺는다

**돼지**

59년생 지인 일에 휘말려 중대한 일 놓친다  
71년생 기대만큼 보람이 있을 것  
83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할이라  
95년생 경솔하게 연행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